

무리에게는 없고 이 여인에게만 있는 것은?

Get rid of busyness relentlessly

마가복음 5장 25-41절

25.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26.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27.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리라 29.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30.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31.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32.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 보시니 33.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주니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이다 35.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36.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37.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움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38.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39.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40.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41.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딸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1. ‘왜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A. W. 토저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크심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봅시다. (사55:8-11)
2. 설교 중에 우리의 존재의 크기를 일깨워주는 두 가지 단어로 ‘하나님의 형상’, ‘흠’을 제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비교하여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서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3. 오늘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들고 나온 회당장 야이로와 ‘죽은 것과 다음 없는 문제’를 들고 나온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만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둘 모두에게 동일하게 요청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이었습니다(34, 36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무엇인 같고 무엇이 다른가요?
4. 나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허심탄회하게 나눠봅시다. 그리고 그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노력이 앞으로 필요할지 고민해봅시다.

